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

Familism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separated family who came over the border

전주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이 성 희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태 현

Jeonju Woosuk University Dept. Home Economics
Full-time instructor : Lee Sung H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Home management
Prof.: Kim Tae Hyun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try to grasp the general feature, familsm,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separated family who came south over the border, on them who are residing inland, as a part of the work to clarify the diverse form and specialty that Korean family have.

To summarize the result simply is as follows:

1. The difference is showing, bewtween separated family and non-separated family, in the family preference and the conciousness to respect parents, among the range of familism. That is, in case of the separated family, family preference and the consciousness to respect parents showed higher, in comparison with the non-separated family.
2. Between separated family and non-separated family, the difference showed

* 본 논문은 이성희(1993)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를 발췌, 재정리 한 것임.

only in the support network of relative. So, the support network of relative of non-separated family showed higher than that of separated family.

Through above conclusion, the situation which is the losing native place and the separated which occurred due to war and the dividing into sections is influencing our family lif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is becoming void gradually.

Ⅰ. 서 론

지난 20~30년 동안 한국가족연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확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가족연구는 조선사회의 가부장제 가족을 전통적 모형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변화해 가는 방향은 서양사회의 핵가족을 모형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가족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많이 진행되어왔다. 물론 한국가족의 변화가 이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족연구의 이론적 인식과 접근방법이 서구사회의 핵가족 이념형이라는 입장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사회의 다양하고 특이한 가족형태를 광범하게 그리고 깊이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서양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핵가족 이념형은 그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가족형태와 가족관계를 이론화한 것으로 우리 한국가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간과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가족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한국가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을 〈분단의 상황〉과 연관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분단은 해방이후 사회의 변동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분단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민족분단과 분열로 강요당한 가족의 이동과 이산은 여러가지 형태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며, 지역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무너짐으로서 오는 불안과 공포는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는 다른 생존의 전략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경험한 처절한 공포, 불안 및 사회적 혼란등은 그들의 가족유대의식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며(이효재, 1985: 216), 때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유대의식이 가족의 분산과 파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해방과 분단 이전에 이미 생활근거를 이북에 갖고 있음으로 해서 가족, 친척 등의 관계망이 이북에 더 견고하고 넓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인척 관계가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월남이산가족의 삶의 재적응 과정은 비이산가족과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위기 및 적응간의 매개체로서 결정적인 역할을(Cobb, 1967; Gourash, 1978; Hendercon, 1977; Bancoff, 1983: 828에서 재인용)하기 때문에, 부모, 친척 및 동족의 지역적 유대에서 벗어난 월남이산가족은 그렇지 않는 비이산가족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득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결혼생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서의 분단가족, 월남가족의 문제들을 분석하지 못하고 지금껏 도외시해 오고 있다. 우리 학문에서 분단과 관련지어서 연구된 논문은 극히 드물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몇 편의 논문(박명선, 1983; 홍두승, 1984; 이효재, 1985; 김명혜, 1988)들이 있지만 경험적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전쟁,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월남이산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족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의식과 사회적 지원체계는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산가족의 월남배경 특성을 파악해 본다. 둘째,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 의식을 파악하여 이를 비이산가족과 비교해봄으로서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의식의 지속 및 변화를 규명해 본다. 세째, 월남이산가족의 사회적 지원망을 파악하여 이를 비이산가족과 비교해봄으로서 이산가족들의 사회적 재적응 형태를 규명해 본다. 네째,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비이산가족과 비교해 봄으로서 이들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해 본다. 다섯째, 가족주의,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서 해방, 전쟁,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가족주의 의식과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해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산가족의 발생

이산가족이란 부모, 자녀, 조손(祖孫) 등의 직계가족관계와 형제, 자매, 숙질(叔姪)간 및 사촌 이내의 방계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한 민족주권의 강탈, 분단 및 전쟁 등의 민족수난의 과정에서 이산되고 분단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이효재, 1985: 232). 이산가족이 발생된 근대역사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째 원인으로는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제적 점검에 의한 36년 동안의 식민지 압제하에서 비롯되어진다. 이후 우리 민족사는 이산가족의 발생이라는 수난의 역사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통치에 의한 이민족하(異民族下)에서의 노예상태의 생활속에서 강요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수 많은 해외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남겨 놓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뒤이은 8.15 해방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의 감격과 함께 인위적인 국토분단인 3.8선의 출현으로 또 다시 이산가족을 대량 발생시키는 두번째의 원인이 된다. 해방이후 1949년 8월 25일까지 남하한 피난민의 수는 3,283,000명으로, 당시 월평균 3,000명이 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6.25 직전까지 북한에서 남하한 피난민의 총수를 3,500,000명으로 추정(1952년 2월 공보처 발행「소련군정의 시말」, 대한적십자사, 1976: 64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남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숫자로, 이 기간 동안의 인구증가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를 급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이효재, 1985: 236)는 것이다. 세번째 원인은 1950년 6.25동란이다. 북한에서 월남하는 가족들의 이동이 가장 급증하는 시기가 된다. 1950년 12월과 1월초 1.4후퇴 직전에 남하한 피난민의 수는 1,000,000명에 가까우며 이를 이미 6.25 이전에 남하한 3,500,000명과 합하게 되면 6.25를 전후해서 남하한 인구만도 약 5,000,000명으로 추정(대한적십자사, 1976: 92)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헤어진 사람과 찾는 사람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면 이산의 아픔을 당하는 가족은 약 10,000,000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북한출신 월남인가족의 범주에 속하게 되지만 월남한 사람들 전체의 구체적인 특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1966년의 특별인구조사에 나타난 자료와 이들의 가족생활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1973-1974년의 〈KBS의 가족찾기 운동〉, 1974년에서 1976년까지의 〈한국일보사의 가족찾기 운동〉 그리고 1983년의 〈KBS방송의 이산가족찾기〉 등에서 나타난 통계가 있다.[1]

2.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 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까지 확산되는 개념(옥선화, 1989: 14)이다. 동양에 있어서 가족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원은 가족을 생산의 기본단위로 삼은 농경체제의 일반적 배경과 가족관계를 인륜의 근본으로 삼은 유교사상의 대두 및 파급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조 사회는 주자학 이념에 근거한 가

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성희(1993)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신관료제적 정치체제하에 가족주의가 사회질서유지의 근본기제로 채택된 것으로 보고(조혜정, 1985; 옥선화, 1989)있다. 당시의 통치집단은 효, 즉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덕목으로 규정하고, 이 덕목을 강조, 확장함으로서 이상적 국가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믿었다. 조선중기 이후는 국정의 문란, 경제의 피폐 및 신분제의 붕괴가 일어나는 가운데 혈족중심의 가족주의는 더욱 강조된 경향을 보인다. 대다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의존할 수 없음을 느끼고 더욱 더 가족 및 친족 단위로 뭉쳐서 생존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지상주의적 경향은 조선조 몰락과 이어지는 일제 압박기와 6.25전란 등을 통하여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한편 이 시기의 가족주의는 국가 및 친족공동체의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또 자본주의적 원리가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주의로 조선조 초기의 가족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띄게 된다. 전 시기에 비해 "친족" 및 "가족"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 문중 수준에서보다는 당내 또는 직계가족 수준으로 교류의 범위가 축소 되어진다. 조선조 말기부터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피폐기를 지나면서 일제 36년간의 나라없는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주의는 "피난민적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이자 생존원리로서 부각되어진다. 이 시기에 가족주의는 사회의 만성적 불안속에 그리고 초기 공업화 시기의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사회의 주요 조직원리이자 삶의 궁극적 가치로 활성화되어진다. 그러나 국가공동체가 확립되고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현재, 가족주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현대의 가족주의는 〈이기적 가족주의〉로서 이미 여러학자들에 의해 규정되어진 바 있다. 조혜정(1985)은 현대의 가족주의가 갖고 있는 집단주의적 성격 및 혈연중심적인 특수주의는 우리사회가 피난민시대를 거치면서 부각된 가족주의의 공리적 특성, 즉 개인을 도구화하는 한편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 될 수있다는 논리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난민 시대의 행위양식이 사회 발전에 특히 조직 및 합의를 형성하는 의사소통 기제의 합리화에 있어 커다란 장애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분단의 피해자인 분단가족, 월남가족들에게는 이와 같은 가족유대의 의식이 가족의 분산과 파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즉, 어느 집단보다 이동과 이산을 심각하게 겪은 월남이산가족 집단에서는 가족주의의 순기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어느 순간에 와해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의 가족이란 생계의 보루인 동시에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지고 따라서 가족에 대한 애착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질 것이다. 이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서양사회의 핵가족의 모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독특한 측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월남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족주의 가치를 파악하여 이를 비이산가족과 비교해 봄으로서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 의식은 비이산가족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가족주의 가치의 변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해 본다.

3. 이산가족과 사회적지원망

사회적 지원망이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로서 접촉을 교환하는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주고 받는 구체적인 지원으로 구성된다. 즉,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사회적 접촉을 통해 상호도움을 교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그 범주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포함되어 진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관계는 우리의 생(生)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여러가지 면에서 편익을 가져오게 된다. 즉 사회적지원망은 개인의 적응에 직접적인 완충작용(Bancoff, 1983; Cohen, 1985)을 하기도 하며, 또한 사회적 지원은 우울, 적응, 건강,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김명자, 1982; 최정아, 1991; 신기영, 1991; Graney, 1975; Mullis & Dugan, 1990)들이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혈연과 지연의 기반이 없는 월남이산가족은 그렇지 않은 비이산가족과는 다른 사회적지원망의 형태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분단과 분열로 강요당한 가족들의 대이동은 여러가지 형태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게 하며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월남가족은 혈혈단신으로 살아왔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결손가족이나 아니면 극히 소규모의 친족들과의 연결을 통해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한계는 연고주의가 강한 남한사회내에서 연고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사회적 참여의 제한으로 인해 여러가지 불이득들이 초래 될 것이다. 홍두승(1984)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회이산가족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측면을 통찰 깊게 살펴 볼 수 있다. 공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보증인이 없어서, 군대에 가려고 해도 호적이 없어서, 군인장교가 되고 싶었지만 고아원 출신이라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아 못가게 되었다는 사례에서 그리고 가족이 없다고 처가에서 괄세를 받다가 혈육과 재회한 후로 처가에서 대우가 달라졌다고 토로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산가족 특히 이북출신의 이산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회적 기회의 박탈과 고립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 또한 없지 않았다. 고아원 출신의 박성수씨 (남, 38세, 강서구 화곡동 거주; 홍두승, 1984: 505에서 재인용)의 경우, 도봉유린원 출신끼리 모여 유린회를 조직하고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매달 한번씩 가족동반으로 모여 정신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고 한다.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시장, 식당가 등의 영업장소를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각종 지방모임, 계, 동창회 등을 구성해 가면서 연고주의가 강한 남한사회내에서 새로운 결속력을 다져 나가고 있다. 또한 특수한 예로서 신앙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생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유대가 깊어진 이들 집단의 집단력과 함경도 또순이, 평안도 박치기 등으로 통하는 이들의 악착 같은 기질의 강인성과 연결되어 출세율이 높고 오히려 비이산가족보다 경제수준이 높아진다고 보는 관점도 제기되어진다. 북한출신 월남인의 계층구조를 보면(조형, 박명선, 1985: 156-167), 전반적으로 월남인들의 계층적 위치는 월남직후에는 많은 동요를 보이지만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대체로 자신들의 출신계층으로 복귀하는 현상을 보이며, 자녀들의 현재 계층적 위치는 오히려 상승이동을 하게 되며 특히 중간계급 부모를 가진 자녀들의 상승이동이 현저해 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계층적 위치와 사회이동 양상에는 친척이나 기타 연고자와 같은 일차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직계가족 혹은 친지가 있었던 경우가 현저하게 계층상승이동이 많아지고 하강이동이 적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월남이산가족들의 경제, 사회적관계 등은 분단과 전쟁으로 변동을 겪게 되며, 일반적인 가족들의 삶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혈연과 지연의 기반이 없는 월남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망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비이산가족과 비교해 봄으로서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사건이 현재에도 월남이산가족의 사회적 지원망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비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로서 두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월남배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구성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족형태, 생활정도, 고향 등을 질문하는 8문항이었으며, 이산가족의 월남배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구성은 헤어진 가족과의 관계, 헤어진 사유, 월남시기, 월남당시의 동행자, 동향민 모임 등을 질문하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주의

가족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는 옥선화(1989)의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를 주로 하고 Heller(1976)의 "Familism Scale"를 참고로 하여,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19개의 문항으로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반대"에 1점 "아주 찬성"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Cronbach's α 계수=.70).

3) 사회적 지원망

Antonucci(1985), Antonucci와 Akiyama(1987), 이성희(1986), 최정아(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지원망의 형태에 따른 지원기능을 파악하는 총 18문항으로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정말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Cronbach's α 계수=.91).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이산가족과, 이들과 비교해 보기 위한 대조군으로 비이산가족 두 집단으로, 결혼상태에 있는 사람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결혼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지원망체계는 결혼한 상태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구별되어지므로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산가족은 월남이산가족으로 한정하여 고향이 북한이며 직계가족 혹은 4촌이내의 방계근친 관계중에 한사람이라도 북한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며, 반면 비이산가족은 고향이 남한이며 북한에 월북한 가족이 한사람도 없는 가족으로 눈두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을 비교해 보는 데에 있어서 분단 및 이산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이 두 집단의 연령, 성별이 될 수 있는 한 고르게 표집되도록 의도적 표집방법도 함께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를 만나 면접방식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이의 결과를 분석, 수정하여 199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된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설문지법(self-reported)과 연령이 많거나 설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조사요원이 직접 읽어주고 응답을 받는 면접방식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625부중 572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이 사용되었고 차이검증을 위해 χ^2-test, t-test가 사용되었고, 변인들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ANOVA, 다중회귀분석, ANCOVA를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SNK(Student-Newman Keuls)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산가족의 월남배경 특성

본 조사대상자들의 월남시기는 1.4후퇴때가 45.5%, 해방후 6.25전쟁 이전이 27.3%, 전쟁발발 직후가 15.3%, 1.4후퇴 이후가 5.9%로 나타났다. 월남당시 동행자를 보면, 부모와 함께 월남한 경우가 27.5%이었으며, 형제와 함께 월남한 경우가 20.7%, 친척과 함께 월남한 경우가 12.9%이었으며, 단신월남한 비율도 20.0%로 나타났다.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이유를 보면, 가정사정(3.6%)이라는 자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피난(39.8%), 월남(45.3%) 하다가 발생한 타의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다. 헤어진 가족의 가족관계를 보면 형제(16.7%)와 삼촌, 사촌, 조카(30.2%) 등의 방계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헤어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도 20.9%로 나타났다. 월남이산가족들의 동향민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48.6%, 참가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F(%)		변 인	구 분	F(%)	
		이산가족	비이산가족			이산가족	비이산가족
성 별	남 자	134(53.0)	131(41.2)	가족형태	핵가족	184(72.7)	178(79.9)
	여 자	118(46.6)	187(58.8)		대가족	69(28.3)	64(20.1)
연 령*	20-29세	34(13.4)	53(16.4)	생활정도	상	41(16.2)	25(7.9)
	30-39세	43(16.6)	74(24.2)		중	159(62.8)	213(67.2)
	40-49세	35(14.6)	55(17.3)		하	53(20.9)	79(25.0)
	50-59세	69(27.0)	67(21.0)	배우자의 고 향	다르다	156(61.3)	144(45.1)
	60-69세	65(22.0)	44(13.9)		같 다	98(38.7)	175(54.9)
	70세이상	17(6.8)	23(7.2)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55(21.7)	60(18.9)	부와모의 고 향	다르다	75(29.6)	71(22.3)
	고 졸	81(32.0)	118(37.1)		같 다	178(70.4)	248(77.7)
	전문대이상	116(45.8)	140(44.0)				
직 업**	전 문 직	27(11.0)	30(9.4)				
	사 무 직	58(23.7)	53(16.7)				
	자 영 업	52(21.2)	55(17.7)				
	단순근로직	16(6.5)	14(4.4)				
	숙 련 직	8(3.3)	24(7.5)				
	제 조 업	9(3.7)	9(2.8)				
	기 타	13(5.3)	15(4.7)				
	무 직	62(25.3)	118(37.1)				

* 실제자료 분석시는 전쟁후 세대(49세이하)와 전쟁세대(50세이상)로 분류함

** 자료분석에 쓰이는데에 부적합한 분포차이로 인해 실제자료 분석시는 전문직과 사무직을 묶어 white collar층으로, 단순근로직과 숙련직을 묶어 blue collar층으로, 자영업과 제조업은 기타로 묶고 무직인 경우의 4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함

고 있지 않은 비율은 51.4%이나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월남인 1세대에 속하는 50대이상에서 동향민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77.1%로 증가하고 있어 월남인 1세대들의 월남인들끼리의 모임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남인 1세대들은 동향민 모임을 통해 동향인들 간의 연대감을 공고히 함으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동향민 모임을 통해 얻는 이득에 대한 응답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비율이 경제적도움(14.2%)보다는 친목도모(22.5%), 정신적위로(51.5%)라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2.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가족주의

두 집단간의 가족주의의 경향을 보면, 이산가족집단의 가족주의(3.56점)는 비이산가족집단의 가족주의(3.41점)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띄고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우선성과 부모 공경의식의 영역에서 이산가족이 비이산가족보다 가족우선성의식과 부모공경의식이 더 높았다. 이는 이산가족에게 있어서 가족의 범위라는 것은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거나 가족이 부재해 있는 상태이므로 자연히 무엇보다도 가족을 우선시하며 부모공경의식이 좀 더 높게 지속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월남이산가족들은 한맺힌 가족관이 존재할

〈표 2〉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가족주의 분포 및 차이

영 역	집 단	N	M	S.D	t - 값
가족우선성	이 산 가 족	251	3.30	0.73	- 3.426***
	비 이 산 가 족	317	3.08	0.74	
	전 체	568	3.18	0.74	
부계가문의 영속화	이 산 가 족	251	3.48	1.00	- 1.341
	비 이 산 가 족	317	3.32	1.00	
	전 체	568	3.37	1.00	
부모공경의식	이 산 가 족	251	3.45	0.72	- 4.178***
	비 이 산 가 족	317	3.19	0.74	
	전 체	568	3.30	0.74	
형제자매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이 산 가 족	251	4.09	0.59	- 0.784
	비 이 산 가 족	317	4.05	0.56	
	전 체	568	4.07	0.58	
전 체	이 산 가 족	251	3.56	0.61	- 3.073**
	비 이 산 가 족	317	3.41	0.59	

** P < .01, *** P < .001

것이며 빈곤과 공포속에서 자기 가족만은 안전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혼란기의 가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며 곧 월남이산가족들의 가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또한 가족주의의 변화를 단지 "산업화"와만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산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향과 이산이라는 상황에 놓여지는 월남이산가족들은 가족주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표 2〉 참조).

3.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사회적지원망

두 집단의 사회적지원망을 파악해 본 결과,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지원망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친척지원망에서만 이산가족(3.53점)보다 비이산가족(3.61점)의 지원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산가족보다 비이산가족의 친척의 범위가 더 넓음에 따라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고 따라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지원의 양이 많게 된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지역적 유대에서 벗어난 실향이라는 상황이 친구나 이웃의 지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이웃의 사회적 지원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서,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 분단으로 발생한 실향이라는 상황이 40여년이 지남으로 해서 그들의 사회적관계가 외형적이로나마 비교적 안정되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표 3〉 참조).

4.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가족주의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가족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이었으며 가족형태의 변인은 이산가족의 가족주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먼저 성별이 가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산가족에게 있어서는 남성의 가족주의가, 비이산가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가족주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의 특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이산집단이라

〈표 3〉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사회적지원망 유형별 분포 및 차이

유 형	집 단	N	M	S.D	t - 값
가족지원망	이 산 가 족	251	4.33	0.49	-0.014
	비 이 산 가 족	317	4.33	0.52	
	전 체	568	4.33	0.50	
친척지원망	이 산 가 족	251	3.53	0.69	1.080**
	비 이 산 가 족	317	3.61	0.60	
	전 체	568	3.57	0.64	
친구지원망	이 산 가 족	251	3.62	0.63	0.878
	비 이 산 가 족	317	3.67	0.63	
	전 체	568	3.64	0.63	
이웃지원망	이 산 가 족	251	2.66	0.82	0.509
	비 이 산 가 족	371	2.70	0.82	
	전 체	568	2.68	0.82	

** P<.01

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주의를 더 보수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산가족, 비이산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40대이하보다 50대이상의 가족주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이상의 이산가족의 가족주의가 비이산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향, 이산을 직접 경험한 월남인 1세대가 가장 보수적인 가족주의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수준과 직업의 변인에서는 이산가족, 비이산가족 모두 같은 결과로서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의 사회적지위가 낮을수록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가족주의의 보수성이 높았다. 그리고 가족유형을 보면, 이산가족에게 있어서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의 가족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이산가족에서도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족집단에서 더 가족주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식과 행동은 서로 관련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사회적지원망의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가족의 사회적지원망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원망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선행연구(Booth, 1972; Drabek, 1975; Bahr, 1976; 이성희, 1986: 24에서 재인용)의 결과와는 달리 이산가족에게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지원망에 더 많이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이산가족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가족지원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표 5〉 참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산가족의 가족지원망은 높게 나타나 중졸, 고졸보다 전문대이상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하보다 상, 중의 집단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지원망 점수가 높았다. 또한 비이산가족의 가족

〈표 4〉 가족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제변인

변 인	구 분	이 산 가 족					비 이 산 가족				
		M	S·D	N	F-값	SNK	M	S·D	N	F-값	SNK
성 별	남	3.65	0.60	126	6.23*	A	3.49	0.60	131	4.70*	A
	여	3.48	0.63	115		B	3.56	0.59	185		B
연 령	40대 이하	3.26	0.58	108	67.26***	A	3.22	0.52	183	54.13***	A
	50대 이상	3.82	0.52	133		B	3.67	0.59	133		B
교육수준	중 졸	3.92	0.57	54	6.25**	A	3.90	0.58	60	22.61*	A
	고 졸	3.52	0.62	78		B	3.45	0.50	117		B
	전문대 이상	3.44	0.57	109		B	3.17	0.54	139		C
직 업	White Collar	3.46	0.58	83	2.98*	B	3.31	0.54	83	1.51*	B
	Blue Collar	3.74	0.63	23		A	3.31	0.67	37		B
	기 타	3.79	0.57	74		A	3.63	0.59	79		A
	무 직	3.39	0.62	61		B	3.37	0.58	117		B
가족형태	핵 가 족	3.51	0.64	176	5.13*	A	3.37	0.57	252	1.09	
	확대가족	3.74	0.52	65		B	3.60	0.67	64		
경제수준	상	3.54	0.73	38	0.23		3.47	0.50	25	0.32	
	중	3.56	0.57	152			3.38	0.52	213		
	하	3.62	0.67	51			3.48	0.65	78		
배우자와의 고향	다 르 다	3.53	0.63	150	0.47		3.31	0.55	143	0.38	
	같 다	3.60	0.59	91			3.50	0.62	173		
부와모의 고향	다 르 다	3.31	0.63	70	1.14		3.32	0.53	69	0.17	
	같 다	3.68	0.58	171			3.44	0.61	247		
전 체		3.57	0.62	241			3.41	0.59	316		

* P<.05, **P<.01, ***P<.001

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원망은 높았다. 이의 결과로 볼 때, 가족지원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층일수록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친척지원망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산가족에게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친척지원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가족지원망과도 같은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친족유지자로서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는 선행연구 (Drabek et al, 1975; Lee, 1980; Rosenthal, 1985; Fisher et al, 1989; Chatters, 1989; 이광자, 1988; 김경원, 1989)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산가족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으로 비이산가족에 비해 공적(公的)인 사회적관계에 있어서 불이득과 한계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사적(私的)인 사회적관계인 가족, 친척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지원망을 보충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후세대인 40대보다 전쟁세대인 50대이상의 친척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지원망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이산가족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월남이산가족 집단 중 40대이하인 즉, 월남인 2세대는 친척지원망 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연고주의가 강한 남한사회내에서 월남인

〈표 5〉 가족의 사회적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제변인

변 인	구 분	이 산 가 족					비 이산 가족				
		M	S·D	N	F-값	SNK	M	S·D	N	F-값	SNK
성 별	남	4.44	0.43	126	12.81***	A	4.28	0.58	131	2.48	
	여	4.22	0.54	115		B	4.37	0.48	185		
연 령	40대 이하	4.35	0.53	108	0.24		4.35	0.54	183	0.45	
	50대 이상	4.32	0.48	133			4.30	0.49	133		
교육수준	중 졸	4.19	0.61	54	2.43*	A	4.09	0.56	60	13.53***	A
	고 졸	4.30	0.49	78		AB	4.31	0.53	117		B
	전문대이상	4.42	0.43	109		B	4.46	0.43	139		C
직 업	White Collar	4.42	0.42	83	1.49		4.37	0.50	83	1.07	
	Blue Collar	4.22	0.71	23			4.25	0.68	37		
	기 타	4.41	0.42	74			4.22	0.56	79		
	무 직	4.16	0.55	61			4.41	0.43	117		
가족형태	핵 가 족	4.36	0.48	176	0.81		4.34	0.53	252	0.01	
	확대가족	4.26	0.53	65			4.29	0.49	64		
경제수준	상	4.41	0.46	25	5.93**	A	4.40	0.47	38	1.66	
	중	4.39	0.45	213		A	4.39	0.44	152		
	하	4.14	0.66	78		B	4.12	0.61	51		
배우자와	다 르 다	4.33	0.51	150	0.02		4.42	0.50	143	3.22	
의 고향	같 다	4.34	0.48	91			4.26	0.53	173		
부와모의	다 르 다	4.34	0.48	176	0.81		4.34	0.53	252	0.01	
고 향	같 다	4.33	0.53	65			4.29	0.49	64		
전 체		4.33	0.53	241			4.33	0.52	316		

* P<.05, **P<.01, ***P<.001

2세대는 이의 결핍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Blue Collar층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에 속한 사람들보다 친척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지원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지원망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지는 결과라 하겠다. 이의 결과는 가족, 친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원에 힘입어 좀 더 높은 사회적계층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형, 박명선(1985: 156-157)의 북한출신 월남인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월남인의 계층상승이동에 가족, 친척들의 연고가 중요한 요소로 밝혀진 것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해석이라 본다. 또한 배우자와 동향일수록 부와 모가 동향일수록 친척의 사회적지원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산가족에게 있어서 동향으로 맺어진 인척관계는 그들의 친밀감의 느낌을 증가시키면서 친척과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된 결과라 하겠다.

③ 친구의 사회적지원망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친구지원망은 앞의 가족, 친척의 사회적지원망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친구의 지원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이산가족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친구의 지원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

〈표 6〉 친척외 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제변인

변 인	구 분	이 산 가 족					비 이 산 가족				
		M	S·D	N	F-값	SNK	M	S·D	N	F-값	SNK
성 별	남	3.62	0.71	126	4.30*	A	3.55	0.62	131	1.58	
	여	3.44	0.68	115		B	3.64	0.58	185		
연 령	40대 이하	3.39	0.76	108	8.51**	A	3.56	0.65	183	2.50	
	50대 이상	3.65	0.63	133		B	3.66	0.52	133		
교육수준	중 졸	3.62	0.70	54	0.48		3.60	0.52	60	0.68	
	고 졸	3.46	0.69	78			3.65	0.61	117		
	전문대이상	3.54	0.71	109			3.56	0.63	139		
직 업	White Collar	3.66	0.70	83	2.58*	A	3.48	0.65	37	0.73	
	Blue Collar	3.41	0.74	23		B	3.58	0.63	79		
	기 타	3.76	0.69	74		A	3.69	0.52	117		
	무 직	3.51	0.65	61		AB	3.55	0.65	83		
가족형태	핵 가 족	3.52	0.75	176	0.26		3.58	0.62	252	0.26	
	확대가족	3.59	0.57	65			3.67	0.51	64		
경제수준	상	3.66	0.70	38	3.91*	A	3.56	0.70	25	0.71	
	중	3.59	0.65	152		A	3.64	0.58	213		
	하	3.29	0.81	51		B	3.51	0.61	78		
배우자와 의 고향	다 르 다	3.45	0.71	150	4.13*	A	3.60	0.62	143	0.17	
	같 다	3.68	0.67	91		B	3.60	0.59	173		
부와모의 고 향	다 르 다	3.29	0.74	70	6.49*	A	3.58	0.75	69	0.09	
	같 다	3.63	0.66	171		B	3.61	0.55	247		
전 체		3.53	0.70	241			3.61	0.60	316		

* P<.05, ** P<.01, *** P<.001

이다. 그리고 비이산가족의 친구지원망은 40대이하가 50대이상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지원망이 높게 나타났다. Shulman(1975)의 연구결과에서도 친구관계는 가족생활주기에서 50대이상의 중년층보다는 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1988: 17에서 재인용).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지원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④ 이웃의 사회적지원망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앞의 가족, 친족, 친구와는 달리 남성보다 여성의 이웃의 지원망이 높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이산가족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웃지원망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웃은 "대면상 접촉"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특성을 좀 더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비이산가족에게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웃에게서 받는 사회적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의 이웃지원망에서

〈표 7〉 친구의 사회적 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제변인

변 인	구 분	이 산 가 족					비 이 산 가 족				
		M	S·D	N	F-값	SNK	M	S·D	N	F-값	SNK
성 별	남	3.72	0.65	126	5.48*	A	3.75	0.62	131	2.94	
	여	3.53	0.63	115		B	3.63	0.64	185		
연 령	40대 이하	3.59	0.69	108	0.65		3.73	0.65	183	4.01*	A
	50대 이상	3.66	0.60	133			3.61	0.61	133		B
교육수준	중 졸	3.70	0.63	54	1.11		3.50	0.73	60	3.36*	A
	고 졸	3.54	0.68	78			3.63	0.60	117		AB
	전문대이상	3.66	0.62	109			3.80	0.60	139		B
직 업	White Collar	3.66	0.65	83	1.18		3.67	0.66	83	1.28	
	Blue Collar	3.42	0.66	23			3.78	0.62	37		
	기 타	3.76	0.68	74			3.64	0.73	79		
	무 직	3.52	0.55	61			3.68	0.55	117		
가족형태	핵 가 족	3.61	0.68	176	0.55		3.68	0.65	252	0.38	
	확대가족	3.69	0.53	65			3.68	0.59	64		
경제수준	상	3.69	0.76	38	2.31		3.88	0.56	25	4.35*	A
	중	3.68	0.61	152			3.72	0.58	213		B
	하	3.45	0.63	51			3.49	0.74	78		C
배우자와 의 고향	다 르 다	3.57	0.62	150	1.34		3.75	0.59	143	1.00	
	같 다	3.73	0.68	91			3.62	0.66	173		
부와모의 고 향	다 르 다	3.67	0.67	70	1.52		3.68	0.62	29	1.47	
	같 다	3.62	0.63	171			3.68	0.64	247		
전 체		3.62	0.64	241			3.67	0.63	316		

* P<.05, **P<.01, ***P<.001

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웃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웃간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arren, 1976; 강대기, 홍동식, 1986; Bulmer, 1986; 정창수, 문용갑, 1989: 176에서 재인용)와 어느정도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6. 가족주의, 사회적지원망,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산여부간의 관계

1) 가족주의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

가족주의를 종속변인으로 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주의에 미치는 사회적지원망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가족지원망, 친척지원망, 이웃지원망이 가족주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9.7%이었다. 그리고 여

〈표 8〉 이웃의 사회적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제변인

변 인	구 분	이 산 가 족					비 이 산 가족				
		M	S·D	N	F-값	SNK	M	S·D	N	F-값	SNK
성 별	남	2.62	0.83	126	5.48**	A	2.67	0.81	131	0.35	
	여	2.77	0.83	115		B	2.72	0.83	185		
연 령	40대 이상	2.59	0.83	108	0.65		2.65	0.81	183	1.83	
	50대 이상	2.76	0.82	133			2.77	0.84	133		
교육수준	중 졸	3.05	0.73	54	1.11		3.04	0.82	60	8.86***	A
	고 졸	2.67	0.77	78			2.76	0.75	117		B
	전문대이상	2.52	0.86	109			2.51	0.83	139		C
직 업	White Collar	2.64	0.90	83	1.18		2.56	0.81	83	0.07	
	Blue Collar	2.73	0.62	23			2.72	0.93	37		
	기 타	2.72	0.78	74			2.77	0.85	79		
	무 직	2.71	0.87	81			2.75	0.77	117		
가족형태	핵 가 족	2.65	0.81	176	0.05		2.71	0.83	252	1.97	
	확대가족	2.78	0.88	65			2.67	0.78	64		
경제수준	상	2.61	0.85	38	2.31		2.57	0.97	25	0.23	
	중	2.71	0.86	152			2.68	0.81	213		
	하	2.70	0.71	51			2.81	0.80	78		
배우자와 의 고향	다 르 다	2.66	0.81	150	1.34		2.68	0.85	143	0.18	
	같 다	2.73	0.86	91			2.72	0.80	173		
부와모의 고 향	다 르 다	2.60	0.93	70	1.52		2.49	0.89	69	2.51	
	같 다	2.72	0.78	171			2.76	0.80	247		
전 체		2.61	0.83	241			2.70	0.82	316		

** $p < .01$, *** $p < .001$

기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ANCOVA검증한 결과, 이들이 가족주의를 설명하는 양은 31.6%이었으며 가족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척지원망,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산여부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ANCOVA 검증한 결과, 전체 설명량은 32.2%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족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연령이었으며, 그 다음은 친척지원망, 교육수준, 이산여부, 직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는 연령이라는 변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산여부라는 변인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는 분단으로 발생된 이산, 실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표 9〉 참조).

2)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

사회적지원망을 종속변인으로 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가족주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가족주의의 하위영역 중 형제자매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9.1%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인구학적 특

〈표 9〉 가족주의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 (종속변인: 가족주의)

독립변인	① 단 계 Ⅰ		② 단 계 Ⅱ		③ 단 계 Ⅲ	
	β	t- 값	Type Ⅲ SS	F-값	Type Ⅲ SS	F-값
가족지원망	-.179	-3.05**	0.104	0.40	0.125	0.49
친척지원망	.296	6.121	5.014	19.22**	5.259	20.30***
친구지원망	-.019	-0.441	0.061	0.23	0.088	0.34
이웃지원망	.080	2.500*	0.216	0.83	0.180	0.70
성 별			0.636	2.44	0.594	2.29
연 령			11.237	43.07***	10.127	39.08***
교육수준			6.943	13.31***	6.838	13.19***
직 업			2.877	3.68*	2.503	3.22*
가족형태			1.381	5.30*	1.078	4.16
경제수준			0.097	0.19	0.133	0.26
배우자와의 동향			0.000	0.00	0.045	0.18
부와 모의 동향			0.015	0.06	0.052	0.20
이산여부					1.196	4.62*
R^2	.097		.316		.322	

* P<.05, **P<.01, ***P<.001

① 단계 Ⅰ: 가족주의에 미치는 사회적지원망의 영향을 본 다중회귀분석 모델.

② 단계 Ⅱ: 단계 Ⅰ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이 추가된 ANCOVA 검증 모델.

③ 단계 Ⅲ: 단계 Ⅰ, 단계 Ⅱ에 이산여부의 변인이 추가된 ANCOVA 검증 모델.

주) ANCOVA 검증시, Type Ⅰ SS(sequential sum of square : 변인을 넣을 때 설명되는 양)와 Type Ⅲ SS (partial sum of square: 변인을 빼게 되면 설명하지 못하는 양)라는 두 값이 산출되는 데 여기서는 Type Ⅲ SS 값이 더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Type Ⅲ SS 값만 적기로 함.

성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ANCOVA 검증한 결과, 이들이 사회적지원망을 설명하는 양은 12.5%이었으며, 사회적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형제자매친척간 사회경제적유대의식과 경제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산여부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ANCOVA 검증한 결과, 12.7%로 설명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설명량은 낮으며, 이산여부라는 변인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지원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가족주의의 하위영역인 형제자매친척간 사회경제적유대의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수준의 변인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원망이 분단으로 발생된 이산, 실향이라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와는 다른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가족의 성격을 광범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분단의 상황〉과 연관시켜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서 전쟁, 분단으로 발생한 실향, 이산이라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월남이산가족의 성격을 규명하여 분단이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산가족의 월남배경 특성을 보면, 월남시기는 1.4후퇴 때가 가장 많았으며 월남시 동행자 유형은 대부분 부분 가족형태 혹은 단신월남 형태이었다. 가족과 헤어진 사유로서는 피난이 가장 많았으

〈표 10〉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종속변인: 사회적지원망)

독립변인	① 단 계 Ⅰ		② 단 계 Ⅱ		③ 단 계 Ⅲ	
	β	t- 값	TypeⅢ SS	F-값	TypeⅢ SS	F-값
가족우선성	-.022	-0.697	0.137	0.69	0.164	0.83
부계가문의영속화	.020	0.834	0.026	0.13	0.041	0.21
부모공경의식	-.011	-0.367	0.012	0.06	0.031	0.16
형제자매친척간	-.242	-6.333***	8.552	42.80***	0.427	42.19***
사회경제적유대의식						
성 별			0.240	1.20	0.250	1.26
연 령			0.417	2.09	0.343	1.72
교육수준			0.044	0.11	0.045	0.11
직 업			0.407	0.68	0.390	0.65
가족형태			0.146	0.73	0.109	0.55
경제수준			2.700	6.76**	2.742	6.86**
배우자와의 동향			0.014	0.07	0.043	0.22
부와 모의동향			0.047	2.24	0.384	1.93
이산여부					0.252	1.27
R^2	.091		.125		.127	

* P<.05, **P<.01, ***P<.001

① 단계Ⅰ: 사회적 지원망에 미치는 가족주의의 영향을 본 다중회귀분석 모델.

② 단계Ⅱ: 단계 Ⅰ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이 추가된 ANCOVA 검증 모델.

③ 단계Ⅲ: 단계 Ⅰ, 단계 Ⅱ에 이산여부의 변인이 추가된 ANCOVA 검증 모델.

며, 헤어진 가족과의 관계는 주로 삼촌(사촌, 조카 포함)이 많았으며 형제, 부모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동향민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월남인 1세대가 강하였다. 둘째, 이산가족(3.56)은 비이산가족(3.41)에 비해서 가족주의가 더 보수적이었으며 특히 가족우선성과 부모공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산이라는 상황이 그들을 더욱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이산가족, 비이산가족간의 사회적지원망은 단지 친척지원망에서만 차이를 보여 이산가족의 친척지원(3.54)보다 비이산가족의 친척지원(3.6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가족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분석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산가족에서는 남성의 가족주의가 더 보수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이산가족에서는 여성의 가족주의가 더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이산가족, 비이산가족의 사회적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분석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족, 친족관계 유지자로서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여성보다 남성의 가족, 친척지원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가족주의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단계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보면, 전체 독립변인들이 가족주의를 설명하는 양은 32.2%이었으며 이들 중 가족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연령이었으며 그 다음은 친척지원망, 교육수준, 이산여부, 직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지원망에 미치는 독립변들의 단계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보면, 전체 독립변인들이 사회적지원망을 설명하는 양은 12.7%이었으며 이들 중 사회적지원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형제자매친척간 사회경제적유대의식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제수준으로 나타나고 이산여부의 영향력은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의 연구결과에서 가족주의는 이산여부라는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원망은 이산여부라는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쟁, 분단으로 발생한 실향, 이산의 상황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가족주의 의식은 중간 이상의 보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은 비이산가족보다 가족주의가 더 보수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가족주의의 변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산업화의 영향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분단의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비의도적인 강제적 분거(separation) 상태에서도 가족주의가 강하게 지속되어 짐으로서, 비의도적 강제적 분거가 오히려 가족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과 비이산가족과의 사회적지원망은 친척지원망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분단으로 발생한 실향, 이산의 상황이 사회적지원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제기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쟁, 분단이 발생한지 이미 4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관계가 비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안정되어졌으며 이는 전쟁, 분단의 영향이 약화, 소멸된 측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원초적 연고관계를 상실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던 월남이산가족들의 묻혀진 비애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가족을 두고 단신 혹은 가족 중 일부만이 월남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들이 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원만하게 남한사회내에 동화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심리적 외로움이나 경제생활의 불편은 지연주의가 강한 사회내에서 외방인에 대한 편견이나 소외로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조형, 박명선의 연구결과(1985: 164-165)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들이 월남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피해로 지방색과 편견, 구직, 주거지, 용자문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방색 혹은 지연주의로 인한 피해는 월남인 동향민끼리의 연대의식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동향민 모임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사회적관계망을 보충함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향민 모임의 이득으로 경제적 도움(14.2%)보다는 고향소식을 들으면서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정신적 위로(51.7%)가 응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월남이산가족들의 남한사회내에서의 심리적 통합의 불완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남한과는 다른 양상의 발전을 보인 환경으로부터 월남하여 남한사회내에 적응,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소외 즉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소외와 고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어질 수 있으나 월남이산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고향과 가족이라는 원초적 관계에 대한 깊은 향수와 한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이들의 심리적 소외 상황에 관하여는 더 깊은 연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이산가족 1세대 뿐만 아니라 2세대까지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로 이산가족 1세대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전쟁, 분단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좀 더 탐색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산가족의 삶의 재적응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현재의 사회적지원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만을 파악하기보다는 월남초기의 적응의 문제를 다루어 비교, 검토하여 본다면 그들의 삶의 재적응과정이 좀 더 탐색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질문지에 의한 경험적 연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이나 생활사연구 등을 통해 월남이산가족들이 겪어온 생활과 생생한 기억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연구는 전쟁, 분단의 영향이 우리의 가

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산가족의 가족주의 및 사회적 지원망의 측면에만 연구의 촛점을 두었다. 따라서 다른 가족생활의 측면이 고려된 경험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에 전쟁, 분단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더 다각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째,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해석과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이산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월남이산가족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기초자료를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와 연구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강대기, 홍동식,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근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16 집, 1982, 123-140.

2) 구해근, 유의영,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21장 "한국인의 미국이민 ", 서울: 범문사, 1983.

3) 김명혜, "분단을 직접 경험한 가족연구 —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4) 김재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 문헌 및 조사연구 —", 한국문화총서 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5)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백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1976.

6)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여성사회연구회편, 서울: 열음사, 1991, 84-110.

7) 옥선화,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8) 유의영, "인구이동과 도시화", 한국사회(제1권, 인구 · 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8, 81-145.

9) 이경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0) 이동원,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1)",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4집, 1984, 7-33.

11) 이성희, "부부의 역할과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2) 이영인, "한국 도시사회의 가족주의", 또 하나의 문화 제1호, 서울: 평민사, 1985.

13) 이효재, "분단시대의 가족연구", 「분단시대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1985, 203-229.

14) 정창수, 문용갑, "대도시 주민들의 이웃관계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3집, 1989, 171-189.

15) 조형,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1985, 145-168.

16) 조혜정, "한국사회 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제17집, 1895, 79-94.

17) 최정아,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8) 홍두승, "전쟁, 이산, 빈곤: 재회가족의 생활사를 통해 본 이산의 사회학적 일 고찰", 한국사회 변동과 발전, 제24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491-511.

19) Antonucci, T.C & Akiyama, H, "Social Networks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oy Model", J. of Gerontology, 42(5), 1987, 519-527.

20) Bankoff, E.A,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4), 1983, 827-839.

21) Bengtson, V.L, & Cutler, N.E.,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alations", in Binstock, R.H. (ed),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6.

22) Cicirelli, V.G.,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1983, 815-824.

23) Cohen, C.I, & Tereci, J., Holmes, D., "Social Networks and Adaptation", The Gerontologist, 25 (3), 1985.

24) Heller, C.I, Reter L., "Familsim Scale: Revalidation and Revis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 423-429.

25) Lee, G.R., "Kinship in the 70'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980, 923-934.

26) Leigh, G.K., "Kinship Interaction over the Family Life Spa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1), 1982, 197-208.

27) Mullins, L.C. & Dugan, E.,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s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The Gerontologist, 30(3), 1990, 377-384.

28) Ward, R.A,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The Gerontologist, 25(1), 1985.